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직업복귀한 산재노동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직업복귀유형, 장해 조기수용 및 재활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상 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의 삶의 질 지표 중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복귀 유형(원직복귀, 타직장재취업, 창업),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수혜여부와 직업복귀 후 소득변화량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2013~2017)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직장에 복귀한 유형에 있어 재해당시 소속된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소득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 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될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직업복귀 후 소득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 지지를 얻지 못해 기각되었다.

주요어 : 산업재해, 산재장해인, 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직업복귀

학 번 : 2019-2830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4
1. 삶의 질 「객관적 지표」로서의 소득	5
2. 삶의 질 「주관적 지표」로서의 자아존중감	7
3. 삶의 질 「주관적 지표」로서의 자기효능감	8
4.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10
제 2 절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직업복귀	13
1. 산재보험 재활사업	13
2. 재활사업의 운영체계	14
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19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22
1. 취업영향요인으로서의 제도적 환경	22
2. 산재장애인과 선천성 장애인의 차이점	23
3. 재해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인	24
4.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2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 3 장 연구설계	31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제 2 절 변수설정	33

1. 인적 요인	37
2. 직업요인과 환경요인	37
3.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	38
4. 소득	38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39
1. 패널조사대상의 선정	39
2. 설문지 구성	42
3. 분석방법	43
 제 4 장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45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45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5
2. 기술통계분석	46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49
1. 문항의 신뢰도 분석	49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51
제 3 절 가설검증	52
1. 고정효과모형 및 성향점수매칭추정법 분석	52
2. 직업복귀유형의 소득변화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	55
3. 장애에 대한 수용과 소득변화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 ..	60
4. 조절변수로서의 재활서비스 효과 분석	61
제 4 절 해석 및 토론	63
1. 직업복귀유형과 객관적인 삶의 질	63
2.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객관적인 삶의 질	66
 제 5 장 결 론	 68
제 1 절 요약	68
제 2 절 재활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69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5
참고문헌	77
Abstract	92

표 목차

[표 2-1] 재활서비스 요약	17
[표 2-2] 주요 선행연구 결과	29
[표 3-1]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변수설정 및 측정 ·	33
[표 3-2] 변수별 관련 설문지 문항	35
[표 3-3] 소득의 정의	39
[표 3-4] 패널조사 개요	40
[표 3-5] 장애등급별 모집단 구성과 표본할당 결과	41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5
[표 4-2] 패널데이터 중 연도별 재활서비스 수혜자	46
[표 4-3]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47
[표 4-4] 장애등급별 직업복귀 통계	47
[표 4-5] 자아존중감 설문항목 신뢰도 분석 결과	49
[표 4-6] 자기효능감 설문항목 신뢰도 분석 결과	50
[표 4-7] 주요 연속형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	51
[표 4-8] 성향점수매칭결과	53
[표 4-9]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	53
[표 4-10] 소득에 대한 고정효과	55
[표 4-11]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상호작용항 통계분석	62
[표 4-12]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63
[표 4-13] 독립변수별 분석결과 요약	63
[표 5-1] 산재보험 패널조사 재활서비스 체계	69
[표 5-2] 정책평가를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	70
[표 5-3] 2011년 미네소타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효과	72

그림 목차

[그림 3-1]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모형	32
[그림 4-1] 경제활동유형별 연도별 소득 평균	48
[그림 4-2] 직업복귀 유형별 소득변화량 분포도	57
[그림 4-3] 성별에 따른 소득변화량 분포도	5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재해는 통상 업무상 재해를 말하고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및 사망’으로 정의된다. 현대 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실업, 노령 등과 더불어 소득감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아가 소득감소가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었고, 특히 한 가구의 구성원에 장애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간호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의 경제활동이 저해되어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김성희 외, 2014). 이렇듯 소득은 개인의 복지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사회보험의 형태 또는 사회수당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노동자의 재해 이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지급), 요양종결 후에는 장애급여(1급부터 14급까지 장애급수에 따라 보상일수 차등 지급)를 지급한다. 그러나 직업복귀한 이후의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경영성과지표에 의하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아직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직업복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직업복귀자의 소득이다. 소득이 재해이전 떨어진 경우 다시 이직할 확률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직업복귀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득의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재해 이후 혹은 요양종결 이후 가까운 한 시점에서
의 직업복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 일부 연구에서는
첫 복귀 이후의 취업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고 있으며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산재노동자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소득보
장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소득수준 및 그 차이에 있어 주요 요인 즉, 직장복귀유형, 장애에 대한 조
기수용, 재활서비스 제공여부의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해보고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해 장애 조기수용 프로그램 제공 등 산재노동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이후 소득의 영향요인을 직업복귀 유형,
장애 조기수용 정도, 재활서비스 제공여부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복귀 유형 중 원직에 복귀한 자의 소득이 재취업이나 창업자의
소득보다 높은가?

둘째, 자기의 장애를 조기에 수용한 산재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소득이 더 높은가?

셋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원직복귀, 재취
업, 창업)한 자의 소득에 조절효과가 있는가?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에서 2012년 요양종결자 2,000명
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추적 조사를 시행한 산
재보험패널조사(PSWCI: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의 5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복귀 유형’,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에 대한 조기 수용’ 등의 변수 중 어떠한 것이 통
계적으로 직업복귀 이후의 소득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 특성과 분석모형의 주요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한 원직장복귀자와 타직장복귀자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평균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노동자의 소득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AS를 활용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에 의하면 살고 있는 가치체계와 문화적 맥락에서와 목표, 기대, 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고, 이것은 개인의 육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적 관계 그리고 환경의 두드러진 특징과 관계에 의해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임병규, 2018).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의 접근법이 존재한다(김종일, 2013). 상향이론의 접근은 개인의 행복감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고, 하향이론의 접근에서 행복감은 개인의 성격의 경향이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선미.김은하, 2015).

따라서 하향이론에서는 삶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경향성 즉 성격, 태도, 신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이지수, 2007). 그러나 Brief, Butcher, George와 Link(1993)는 이에 대한 통합모델로서 객관적 조건과 개인의 심리적 조건이 함께 주관적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이란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및 감정적 안녕 뿐만 아니라 개인적 발달과 행동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안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김선미.김은하,2015). 객관적인 평가란 건강, 소득, 주거의 질, 친구관계, 활동,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 주관적 평가는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Felce & Jonathan, 1996 윤조덕, 1998 재인용). 또한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라는 개념들은 재활에 대한 결과

측정도구로써 사용되어 왔다(Vestling, Tufvesson, & Iwarsson, 2003).

삶의 질 척도 중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인지하는 일상의 만족정도, 현재의 자신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된다(Diener, Inglehart, & Tay, 2013 Nesterko et al, 2013). 산재보험 패널조사를 활용한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연구 논문 대부분에서 사용되었고, 일상생활만족도는 (1) 가족의 수입 (2) 여가 생활 (3) 주거 환경 (4) 가족 관계 (5) 친인척 관계, 6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소득’과 독립변수인 ‘장해의 조기수용 정도’의 조작적 정의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삶의 질 「객관적 지표」로서의 소득

가. 소득

소득은 어떤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가장 일반화되고 자료 획득이 상대적일 쉬워 객관적 가계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로써 활용되며,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없다(여유진, 2002) 가계의 소득은 가계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을 말한다. 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수입이 있는데 수입은 소득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가계에 유입되는 화폐의 가치, 예를 들면 예금을 찾은 돈이나 재산매각대금, 부채 등을 포함한다(이승신 외, 2002).

나.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e. SES)는 주로 교육, 소득, 직업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상하 개념의 위치를 나타내며,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와 경제적 지위(economics status)를

포함한다(김승곤, 2004; 김진영, 2007; 이수용·송창근, 2017 재인용). 사회·경제적 지위는 각기 다른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낳고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Kriesberg, 1963; Turner, 1984). 교육, 소득, 직업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라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는 자신을 사회계층구조 속에서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에 대한 심리사회적·정서적 개념으로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오현복, 2010).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조민수(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노동시장 진입여부, 정규직 취업가능성, 직업위세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은 다시 소득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Smits, 2005; 신승배, 2009에서 재인용).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소득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동기(2006)는 중산층이 귀속의식에 있어서 객관적 요인들과 개인들이 객관적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객관적 소득, 교육수준보다는 개개인이 인지하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중산층 귀속의식을 더욱 잘 설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한 계층의식은 낮은 소득수준, 불안정한 직장, 노조 가입, 낮은 직업만족도 등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개인의 소득수준은 주관적 계층의식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베이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그래프와 술만 Zingraff and Schulman, 1984). 저자들은 이러한 발견은 노동자 계층의식의 주요 근원으로 경제적, 직업적 불안정성 등 경제적 박탈을 강조하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정희옥, 2016).

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받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하여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보통 한 국가의 평균 행복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적 수준, 흔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에 따른다고 알려진다. 이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재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실제로 20세기에 이룬 고도성장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면서 GDP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었고(윤강재·김계연, 2010), 실제로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이민아·송리라, 2014).

산재노동자는 산업재해 이후 실질소득은 36.5% 감소한다(고용노동부, 2012).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산재노동자들 대부분이 40~50대임을 감안하면 가족 부양에 따른 목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Theory)에 의하면 일시적인 소득감소 시기에 돈을 빌려서 소비를 유지하고,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Theory)에 의하면 소비의 특성상 소득 수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다(이원형·한종수, 2015). 산재노동자들이 산재로 인해 소득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소비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어 고통이 큰 것이다.

2. 삶의 질 「주관적 지표」로서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자신의 가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lascovich et al, 1991, 임병규, 2018 재인용). 자신의 이상적 상태로 가져가는 삶의 변화는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생각이 질병을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었다(Torrey et

al, 2000).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나, 일반적으로 이 두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는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Scale)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3. 삶의 질 「주관적 지표」로서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自己效能感)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데, 그는 인지된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삶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의 수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Bandura, A., 1998).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행동하게 하는지 결정하는데 이러한 신념은 인식적인, 동기부여적인, 정서적인, 선택적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생산하고, 강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취와 웰빙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강한 헌신을 유지한다(Bandura, A., 1998).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피하고 목표에 대한 열망과 열의가 약하다(Bandura, A., 1998). 자기효능감은 인사 및 조직에서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원 관리, 교육에서의 학습전략, 임상에서 금연치료, 재활훈련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된다(두산백과 www.doopedia.co.kr). 산재노동자에게 자기효능감은 적합한 일로의 직업복귀 여부나 직장에서 업무수행능력, 주변으로부터 인지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박수경, 2012), 자기효능감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재해로 인한 휴업 이후 직업복귀를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근로자는 재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보다 더 잘 직업복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Black et al, 2017).

한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capability)에 대한 믿음(Bandura 1978, 1986)”으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을 동원하고 스스로 동기부여(motivation)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Wood & Bandura 1989)”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호보완적인 삼자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인지이론(self cognitive theory)에 바탕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개인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획득된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ndura 1986; 이하영, 2016 재인용). 개인의 행동은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인지적 요인의 매개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이다(이정옥 2012: 16-7).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원천으로 i) 자신의 직접적인 성취 경험(mastery experience), ii) 타인의 성취와 그에 대한 보상의 관찰을 통한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iii) 자신의 과업수행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iv) 생리적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보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정희, 2006: 11).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요소로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조절 효능감

(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task-difficulty preference)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그러한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한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목표한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반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목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위요소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하고(Schunk 1991) 도전적인 목표는 높은 수행을 야기하며 이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 다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 또한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하위요소에 포함된다.

4. 자기효능감과 장애 수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장애수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수용’에 대한 의미를 보면 ‘수용’이란 불행에 대한 일종의 체념으로서 그저 참을성 있게 감수(resignation)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자신이 다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택할 것이라는 선호(preference)까지 넓은 범위의 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장애수용이란 자신의 장애를 ‘가치절하 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이채식·김명식, 2012; 백연옥, 2005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Marinelli & Deal Orto(1984)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개인의 가치와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장애인과 그와 관련된 많은 주변사람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그들이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많은 변화에 기꺼이 적응하고자 할 때에 재활은 더욱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수용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장애가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장애를 변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장애인으로서의 긍정적 정체감을 가질수록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안정되고 솔직하며 쉽게 좌절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1).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권도용, 1994)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를 수용하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나 제한요소에 대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과장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여 장애를 인정하고 회복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을 투여해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고관우·남진열, 2016; 권성현, 2019 재인용), 자기가치감이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수용은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과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현재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Wright, 1969). Livneh(2001)는 장애수용은 생물학적인 건강상태와 종교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상호작용을 거쳐 상황적 맥락과 결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재할, 심리적 특성,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참여정도,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에 대한 지식 등, 공감능력, 직무배려 등에 영향을 받는다(공마리아·강윤주, 2013; 박지순, 2015; 이은미 외, 2016; 김수영, 2018).

이처럼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심각성이라기보다 장애를 용인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 심리적·사회적 적응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증상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능력은 환경에 반응하는 개인의 감정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삶을 스스로 개선하고 만족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수용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Albrecht & Devlieger, 1999). 그래서 같은 수

준의 장애정도라도 장애에 적응하고 상실을 수용하는 장애수용의 수준이 높으면 장애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박자경, 2010).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 영역을 확장하고 장애수용을 돕는 다른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내적인 가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Wright, 1983; Groomes & Linkowski, 2007). 그렇지만 신체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수용하여 삶을 재평가하는 긍정적인 경향성을 형성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자기수용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삶의 목적과 가치체계가 변하고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가 장애근로자에게 지속되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등에 노출될 수 있다(이채식·김명식, 2012).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수준을 높여(김영애·임유진, 2018),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 기여하므로 장애수용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신주영 외, 2015).

장애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장애수용이 성숙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지니게 하고(Starr & Heiserman, 1977: 송지연, 2018 재인용), 자신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취업준비, 진로결정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이채식, 김명식, 2015; 정민선, 2012: 송지연, 2018 재인용)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장애인(이종하, 2008), 지체장애인(최은경, 2012), 중증 뇌병변장애인(김태우, 2015), 발달장애인(송지연,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광명, 2018).

제 2 절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직업복귀

1. 산재보험 재활사업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제공여부’와 관련하여 공단의 재활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제도로 산재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무 보험이다(임병규, 2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장에만 적용하였고, 적용 확대를 계속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1982년에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 나갔다. 또한 보험급여도 처음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급여, 장의비 등의 6가지였으나, 2000년에는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2008년에는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재활은 산재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역할을 수행하고 잔존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직업적, 의료적, 신체적 중재를 제공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조성재외, 2014). 즉, 재활은 의뢰, 초기면접, 포괄적이며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진단 평가, 직업적 목표를 포함하는 대상자(client)의 욕구와 각종 평가 결과를 고려한 맞춤형/개별화 재활프로그램(individualized rehabilitation program)을 수립하고, 재활프로그램에 기한 다양한 서비스(상담과 지도, 육체 및 정신 복원, 일상생활적응, 직업훈련, 고용 준비 등) 제공, 사례 종결, 사후 서비스로 이루어진 유기적이며 연속성을 지닌 일련의 포괄적 과정이다(Maki & Tarvydas, 2012)

우리나라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사업은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재활”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01년부터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 수립·운영하고 있다(조성재외, 2014). 초기에 재활사업의 운영은 법정급여가 아닌 예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법정급여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이정한, 2015). 이는 재활사업이 산재노동자에게 예산에 따른 임의적이며,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법에 규율된 안정적이고 권리로서의 제도로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조성재외, 2014). 그러나 법정급여 이외에도 예산사업을 통한 재활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재노동자에 대한 제도에 재활사업이 포함되었을 당시 예산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제도적인 특성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8).

2. 재활사업의 운영체계

다음으로 재활사업의 종류에 따라 운영체계를 분류하면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산재노동자에게 치료 종결 이후의 경제생활 안정적 유지를 돕고자 산재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장학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노동자가 신체적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해당 산재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직영병원 7개 재활전문센터와 53개 재활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18), 치료 종결 이후 상병의 악화, 재발, 합병증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치유 후 잔존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를 2000년 7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심리재활은 산재노동자들이 가지는 자기행동제한, 신체 부상에 따른 불안 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이 있다(고용노동부, 2018).

이중 심리상담은 산재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가족 및 대인관계, 사회 및 직업 적응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내용은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점수에 따라 일반상담, 기초심리상담, 집중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지원대상은 다차원심리검사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고용노동부, 2018)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산재로 인해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심리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가가 동료환자들과 함께 하는 집단활동 프로그램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기능향상프로그램, 직업기능향상 프로그램, 가족 유대강화 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2년 이상 통원치료 중인 산재노동자 및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자로 3년 이내의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족 및 간병인도 참관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고용노동부, 2018).

재활스포츠지원은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스포츠기관에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내 스포츠기관에서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통원 중인 환자는 주치의의 운동치료 및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이상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척추의 경

우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팔.다리의 경우는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치료 종결한 산재노동자는 통원 치료 중인 자와 같이 장해 부위나 내용은 같지만 치료 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고 실업인 상태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18).

취미활동반은 진폐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병원 내에서 취미활동 지원으로 운영되고,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8).

셋째, 직업재활서비스는 재해 발생 이후 원직장복귀 또는 재취업, 창업 등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업훈련, 창업지원사업, 내일찾기서비스 등이 있다. 먼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 이후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실시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산재노동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월 30~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제12급 이상이어야 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비도 산재노동자들의 원직장복귀 촉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자체시설 또는 외부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과 동일하고 지원비용은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한도,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한도로 각각 최대 3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은 원직장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기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업훈련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와 미취업 중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산재노동자 대상이며,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한다(고용노동부, 2018).

창업지원사업은 원직장복귀 및 타직장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 창업지원을 통해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은 산재노동자에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임차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련 직업훈련 수료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진폐 산재장해인,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마지막으로 내일찾기서비스는 산재 이후 직업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치료 초기 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손상된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돕는 일련의 서비스이다(고용노동부, 2018).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산재노동자의 조기재활과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제도가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고(한충현·이승욱, 2015), 지원단계는 먼저 최초상담을 실시하며, 이후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일찾기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 이후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며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표 2-1] 재활서비스 요약

구 분	서비스 제공내용
의료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재활치료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재활전문센터 및 46개 재활인증 의료기관 중심으로 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노동자의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치유된 후 잔존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 사전 예방 목적, 관리대상별 산재장해인이 지원 대상

<p>사회·심리 재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산재로 인한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로 다차원심리검사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가 지원 대상 • 희망찾기 프로그램 산재사고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심리불안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가가 동료환자와 함께하는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치료중인 산재노동자가 지원 대상 • 사회적응 프로그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 2년 이상 통원치료 중인 산재노동자 및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자로 3년 이내의 자가 지원 대상 • 재활스포츠지원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한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수영, 헬스, 수중재활, 척추재활 등 제공하며,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이상 장애,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애,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원환자 및 치료 종결자가 지원 대상 • 취미활동지원 진폐 등으로 장기치료 중인 산재노동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요양담당기관에 취미활동반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p>직업재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노동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등급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 지원금 지급(월 30~60만원) •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비

	<p>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원직장 자체시설 또는 외부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한도,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한도로 3개월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사업 <p>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점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 점포 지원이며, 감정평가 결과 채권확보가 가능한 점포로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등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 (월세 점포의 경우 월 200만 원 이내의 점포만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찾기서비스 <p>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에 대해 치료초기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 지원을 통해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p>
--	--

<출처: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재구성>

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직업복귀 유형(원직복귀, 재취업, 창업)’과 관련하여 원직장복귀의 중요성, 나아가 공단의 직업복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해인 고용정책은 일반장애인 고용정책의 의무고용률 유지나 부담금 부과와 같은 명령지시적 정책수단 대신 2003년 7월 1일부터 원직장복귀지원금 등과 같은 시장유인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¹⁾에 따라 요양 중 및 요양종결 후 30일간 원직상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를 금지할 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²⁾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성격상 장해근로자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관습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정환, 2015).

산재노동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생산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경제적 측면,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경쟁력 있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이정환, 2015).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의 주요 경로는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이 있으며, 특히, 산재장해인의 원직장복귀는 산재노동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주요한 경로이며 직업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재활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며, 재활사업 시행 이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당면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동부 질의회시(1987-03-10, 근기 01254-3880)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보상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근무가능한 직종으로 전직 조치하여 취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의 업무특성상 장해근로자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관습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의 유형에는 원직장복귀, 타직장 재취업, 자영업 창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산재보상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제는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치료 및 현금 보상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자가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직업복귀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올랐으며 그 덕분에 지난 13년 동안 재활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직업복귀율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박은주, 2014).

산재장해인(중도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보다 근로복귀에 대한 의욕도 높는데 이러한 특성은 장애발생시점에 따른 장애인 사이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장해인의 취업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천성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산재장해인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장해인인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진입의 문제가 아니라 ① 직업복귀의 문제, 곧 장해를 갖기 이전의 직장이나 직무에 장애를 가진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지, ② 직장이나 직무전환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에서 고용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임종호, 2010).

그동안 학계에서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된 주제로 다루어져왔고(Butler et al, 1995; Infante-Rivard and Lortie, 1996; Blackwell et al, 2003; 정원미 외, 2003; 박수경, 안치민, 2006; 강희태 외, 2006; 이승욱, 박혜전, 2007; 류만희, 김송이, 2009), 단순한 복귀여부를 넘어서 원직복귀인지, 타직복귀인지 등의 복귀유형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편 발표된 바 있다(강희태 외, 2006; 양재성외,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산재보상정책의 목적인 직

업복귀율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재할정책의 수립 및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은주, 2014).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정책은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요양 중 및 요양종결 후 30일간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를 금지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성격상 장애근로자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관습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정환, 2014; 임병규, 2018 재인용).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일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의무고용률이나 부담금 부과와 같은 강행적 정책수단이 아닌 2003년 7월 1일부터 원직장복귀지원금 등과 같은 시장기제를 활용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빨리 노동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산재노동자 근로자가 직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의 주요 경로는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으며, 특히,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는 산재노동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주요 경로이며, 직업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재활사업의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원직장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재취업을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데(이정환, 2015), 최근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2013년 50.9%에서 2017년 63.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취업 영향요인으로서의 제도적 환경

산재노동자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보상서비스라는 제도적 특성을 영

향요인으로 큰 틀에서 개인의 행위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 즉 제도적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연섭, 2011: 46). 특히, 노동시장 내 행위자들의 행동방식은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자본축적의 논리뿐만 아니라 제도나 가치, 규범, 권력관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정이환, 2013: 44), 이 때 산재노동자에게 가장 밀접한 제도적 환경은 산재보상서비스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재영과 최영(2014)의 연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이라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특성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사업 참여자와 가장 밀접한 제도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이웅·엄명용, 2016). 무엇보다 산재보상체계가 노동계급의 불만(족)을 진정시키는 국가차원의 한 방안이라고 했을 때(Wooding and Levenstein, 1999: 168), 산재보상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산재 이후 근로자의 다양한 만족상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이웅·엄명용, 2016).

2. 산재장애인과 선천성 장애인의 차이점

산재장애인은 사회생활의 경력에 따른 인적자원의 정도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수준의 측면에서 선천성장애인과 차이가 난다(임종호, 2010). 중도장애인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아왔고, 직업생활을 해온 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많아 선천성장애인에 비해 직업재활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이경희, 1998). 또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적, 사회적 관계망을 넓게 형성해 왔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원조체계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도장애인들은 일단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기능을 활용한 대체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선천성 장애인들보다 직업재활을 비롯한 사회적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이경희, 1998)

산재장애인은 또한 근로복귀에 대한 의욕도 높다.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1999)」에 의하면, 산재장애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85.5%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장애발생시점에 따른 장애인 사이에 차이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취업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재해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인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 재해가 발생하여 2009년에 요양종결한 산재노동자 중 산재다빈도상병인 상.하지골절, 허리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 528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재노동자의 취업력을 6가지로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박은주, 2014).

첫째, 산재노동자가 재해 이후 복귀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실업상태로 되는 경우가 13.6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재해 이후의 복귀가 꼭 성공적인 복귀가 아님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원직복귀자 중 그 직장에서의 고용을 유지하는 비중은 77.08%, 타직복귀자 중 그 직장에서의 고용을 유지하는 비중은 47.66%로 나타나, 원직복귀가 재해 이후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주요한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결혼상태가 일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연령이나 학력 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해당시 고용특성 중에서 재해 이후의 취업력 유형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 재해당시의 고용 특성들이 재해 이후의 고용상태 및 취업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해 직전과 재해 이후 첫 복귀시의 월평균소득의 변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상해부위, 요양기간, 장애등급 등의 재해특성들은 취업력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원직복귀 후 그 직장에서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타직복귀 후 그 직장에서의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장애 없는 경우보다 13-14급에 해당되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났을 뿐이다(박은주, 2014).

4.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장애 수용’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사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가.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생활만족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권오형, 2019)에서는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경로역할 여부와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장애인 및 노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은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고민석, 2015), 차별경험에 의해 낮아진 중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수용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박현숙 외, 2013),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종일, 2013),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 즉,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및 직무 만족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생활 만족도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수용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은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의빈 외, 2018), 후천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양혜

린 외, 2017)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이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수용의 증가는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기효능감의 증가 역시 장애수용의 향상을 꾀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생활 만족도 사이의 경로 분석을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오형 외, 2018),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과 함께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한 연구(김선미 외, 2015)와 그 견해를 같이 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했다. 이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수용을 통하여 생활 만족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장애수용의 결과 변수이며 생활 만족도의 요인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권오형, 2019).

나.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김자영, 2018)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할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 연구들(송진영, 2012, p.340; 이채식, 김명식, 2012, p.46)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기존의 여러 연구들(박현숙, 양희택, 2013; 박미량, 2014, p.44; 송진영 2016, p.83)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장애수

용이 미래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충훈, 최희철(2016, p.162)과 정승원(2014, p.18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외에도 장애수용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선행 연구들(김하경, 2002, p.31; 백광, 서연태, 김연수, 2014, p.139)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둘째,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를 통해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또 이를 토대로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과 위축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상실될 수 있으며, 이는 또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직장생활 적응과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희(2000)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여야지만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의 적응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수용과 생활만족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거나(김경숙, 2009; 오윤진, 이순민, 2017), 지체장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백광, 서연태, 김연수, 2014)들은 본 연구모형과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자영, 2018).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산재장애에 관한 연구는 산재장애근로자의 직장복귀, 삶의 질 문제, 자아효능감 등에 치우치거나 산재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만큼 산재장애와 소득문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권영훈, 2018).

또한 산재발생 이전소득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 산재 발생 이후 소득과

직접비교가 어려워 산업재해로 야기된 소득상실에 관한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재해 이후 근로자에게 원직장복귀가 경제수준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인 점을 확인하였으나 원직장복귀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권영훈, 2018).

그리고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임종호,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 후속연구를 위하여 산재사고 전후 같은 직장여부와 같은 직무여부 변수로 구체화한 변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화된 변수의 유의미성은 장애인고용정책방안을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 같은 직장여부와 같은 직무여부 변수가 월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방안에 장애발생이전과 같은 직장 또는 같은 직무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여부를 구분하여 임금함수를 분석해본다면 분단된 노동시장구조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산재사고를 당한 장애인 가운데 노동시장에 복귀한 장애인과 복귀하지 못한 장애인을 비교하여 근로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근로복귀한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와 병행될 때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이 좀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임종호, 2010)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박은주, 2014)에서는 재해 이후의 취업력을 충분히 관찰하는데 있어 그 기간을 너무 짧게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복귀한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1년 이내 이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좀 더 충분한 관찰기간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산재노동자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산재노동자의 취업력 분석결과가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승렬, 2007).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임금분석에 사용

한 변수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각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여 장애인전체를 대상으로 임금 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주로 선행연구로 살펴본 것은 임종호(2006), 이정호(2002), 이재선(2002), 유동철(2000), 권유경(1998)의 연구이며, 주요 채택 변수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임종호, 2010).

[표 2-2] 주요 선행연구 결과

요인	주요변수	임금 높은 경우	임종호 (2006)		이정호 (2002)		이재선 (2002)		유동철 (2000)		권유경 (1998)	
			채택 변수	유의 미	채택 변수	유의 미	채택 변수	유의 미	채택 변수	유의 미	채택 변수	유의 미
인구 사회 학적 요인	가구주여부	이다	◎						◎			
	결혼상태	기혼	◎	●			◎		◎			
	성별	남성	◎		◎		◎		◎		◎	●
	연령	많다	◎	●	◎	●	◎		◎	●		
장 애 요인	일상생활능력	높다	◎						◎		◎	
	의사소통능력	원활	◎									
	장애유형	신체			◎	●	◎	●			◎	●
	장애정도	경증			◎	●						
	장애기간	길다			◎							
	근로제한	없다			◎						◎	
인적 자본 요인	교육수준	높다	◎	●	◎	●	◎	●	◎	●	◎	
	자격증유무	있다	◎				◎				◎	
	직업훈련여부	받았다	◎		◎							

사 회 제 도 적 요 인	사회적지지	받 았 다	◎									
	소득보조	적다	◎									
	차별경험	없다	◎	●								
노 동 시 장 요 인	근속기간	길다	◎		◎	●	◎	●	◎	●		
	고용형태	상 용 직	◎		◎	●			◎		◎	●
	장애관련기업	아 니 다	◎								◎	●
	직무형태	전 문 직	◎	●			◎		◎			
	직장규모	크다	◎	●					◎	●	◎	●
	근로시간	적다			◎							
	같은 직장 복귀	높다			◎							
	같은 직무 복귀	높다			◎	●						
	직무서열	높다			◎	●					◎	●
	자본집약산업	이다			◎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개 년도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변수들 외에 ① 직업복귀 유형(원직장복귀, 타직장복귀, 자영업) ② 장애 조기수용 정도를 추가하여 소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연구문제는 어떠한 요인이 산재노동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1) 원직장복귀, 재취업, 창업 이 세가지 유형의 직업복귀 중에 어느 유형이 복귀 이후의 소득에 가장 정(+)의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2) 산재장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조기에 수용한 경우 직업복귀 이후 소득에 정(+)의 영향을 갖는지, 마지막으로 3) 공단의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한 산재노동자의 소득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한 가설검증의 의의는 직업복귀 유형, 장애 조기수용 정도, 재활서비스의 소득에 대한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적 요인(주관적 요인) 가설은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수용은 근로 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산재장해인에 있어 장애수용이 삶의 질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양(+)의 소득변화량이 클 것이다.

가설 2 -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에 있어 재활서비스를 받았으면 양(+)의 소득변화량이 더 클 것이다.

둘째 직업요인의 경우 원직장복귀, 타직장복귀, 자영업으로의 복귀로 세분한 뒤 재해 이전 근무하던 원직장에 복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소득이 높을 것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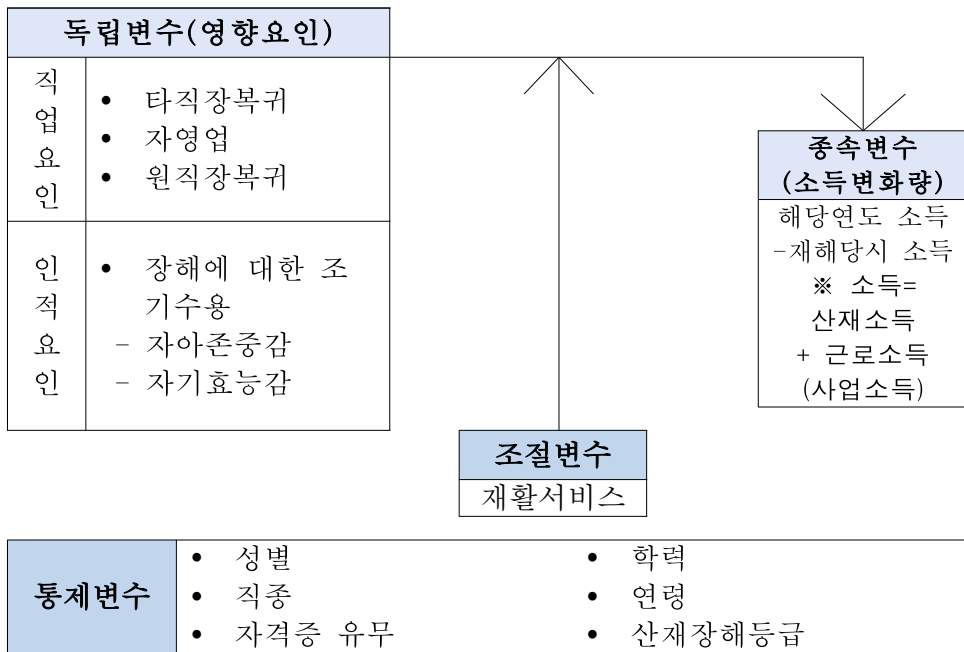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산재노동자의 경제수준 유지를 위해 원직장복귀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므로 일응 원직장복귀의 소득이 다른 유형 즉, 타직장복귀나 자영업의 경우보다 높다고 예측이 되지만 어느 정도 차별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산재장해자가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체장해로 인해 타직장에 재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노동력 손실에 대한 사업주의 불신이나 지원미비 등의 이유로 재해이전의 소득보다 더 적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승욱·신태식, 2010)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원직장복귀자가 타직장복귀 또는 자영업자 보다 양(+)의 소득변화량이 클 것이다.

가설 4 - 타직장복귀자가 자영업자보다 양(+)의 소득변화량이 클 것이다.

가설 5 - 직장복귀자(원직장복귀, 타직장복귀, 자영업)가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경우 양(+)의 소득변화량이 더 클 것이다.

[그림 3-1]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모형



제 2 절 변수설정

직업복귀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영향요인 분석은 산재보험 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장애등급, 성별 등 통제집단별 소득이 직업복귀유형, 재활서비스 제공여부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가 선택한 직업복귀유형(원직복귀, 재취업, 창업) 외에 장애 조기수용 정도를 추가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제공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등으로 설정하였다.

[표 3-1]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변수설정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의 구성
독립 변수	직업 요인	· 직업유형(원직복귀, 타 직장 재취업, 자영업)	emp06 원직복귀=1 타직장재취업=2 자영업=3(기준범주)
	인적 요인	·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	자아존중감(gb007001~10) 4점 척도를 일부 역코딩 ³⁾ 하여 esteem변수 설정 자기효능감(gb009001~23) 5점 척도를 일부 역코딩하여 efficacy 변수 설정
조절 변수	환경 요인	· 재활서비스 제공여부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여 부 ·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여 부 ·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 공여부	service 제공=1 미제공=0 jobservice 제공=1 미제공=0 medservice 제공=1 미제공=0 psyservice 제공=1 미제공=0
종속변수		소득변화량	소득변화량=해당연도 소득-재해

		<p>당시 소득</p> <p>해당연도 소득=산재소득(h004005)+근로소득(e1003024, e2004017) 혹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e3005008)</p> <p>재해당시 소득(c002018)</p>
통제변수	<p>· 성별</p> <p>· 연령</p> <p>· 직종(제조직, 사무직)</p> <p>· 자격증 유무</p> <p>· 학력</p>	<p>gender</p> <p>남성=1 여성=0</p> <p>age</p> <p>20대 이하=1</p> <p>30대=2</p> <p>40대=3</p> <p>50대=4</p> <p>60대 이상=5</p> <p>e1003001(원직복귀직종), e2003005(재취업직종), e3001007(자영업직종)을 job변수로 설정</p> <p>관리자=1</p> <p>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p> <p>사무 종사자=3</p> <p>서비스종사자=4</p> <p>판매 종사자=5</p> <p>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p> <p>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p> <p>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p> <p>단순노무 종사자=9</p> <p>군인=10</p> <p>자격증(a005001)은 license변수로 설정</p> <p>있다=1 없다=2</p>

	· 산재장해등급	edu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졸 이상=5 disa06은 grade변수로 설정 1~3급=1 4~7급=2 8~9급=3 10~12급=4 13~14급=5 장해등급 없음(무장해)=6
--	----------	--

[표 3-2] 변수별 관련 설문지 문항⁴⁾

변수명	문 항	변수값과 변수내용	비고
직업복귀유형 emp06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1. 원직장복귀자 2. 재취업자 3. 자영업자 4. 무급가족종사자 5. 실업자 6. 비경제활동인구	

3) 답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가 설문에 바르게 응답했는지를 확인 하려는 목적으로 문항의 항목을 거꾸로 물어보는 역문항을 코딩함, 해당 문항의 경우 반대로 값을 매겨주었음

- 자아존중감 해당 문항: 3번, 5번, 9번, 10번 문항

- 자기효능감 해당 문항: 2번, 5번, 6번, 7번, 10번, 12번, 14번, 16번, 17번, 18번, 20번, 22번 문항

4) 출처: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안내서,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자아존중감 gb007001~10	다음은 현재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 이하 [표 4-5] 참조	문항마다 긍정, 부정 성격이 다름								
자기효능감 gb009001~23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 Sherer, Maddux 및 Jacobs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 - 이하 [표 4-6] 참조	문항마다 긍정, 부정 성격이 다름								
근로소득 e1003024	[원직장복귀] 현재 ○○○님의 한 달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초과 근로수당 포함)	한 달 평균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근로소득 e2004017	[타직장복귀] 현재 ○○○님의 한 달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초과 근로수당 포함)	한 달 평균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만원								
사업소득 e3005008	[자영업] □□□ 사업체의 매출 및 수익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익: 000만원								
산재소득 h004005	2016년 한 해 동안 ○○○님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회보험급여 등)은 얼마입니까? 응답자 1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회보험급여 - ☑ 산재보험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000만원	연간 소득으로 12분의 1							
재해당시 소득 c002018	재해당시 소속사업장의 1일 평균임금	000원00전	월30일 기준으로 환산							

직종 e1003001, e2003005, e3001007	현재 ○○○님께서 주로 하 는 일은 무엇입니까? - 직업분류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2 사무 종사자=3 서비스종사자=4 판매 종사자=5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단순노무 종사자=9 군인=10	분석시 5개 로 재분류함 관리, 사무, 전문직=1 서비스, 판매 =2 농림, 기능, 기계=3 단순노무=4 무직 등=5
--	---	--	--

1. 인적 요인

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장애정도를 포함한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연령은 조사 당시(2017)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서열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노동능력의 영구적인 상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3급, 4~7급, 8~9급, 10~12급, 13~14급으로 구분한다.

2. 직업요인과 환경요인

직업복귀 유형은 산업재해 이전 근무하던 1)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 2) 타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3) 자영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었고 재해이전 근무하던 원직에 복귀한 경우는 1, 원직장에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

업(재취업)한 경우에는 2, 자영업을 개업한 경우에는 3으로 각각 부호화하였다.

재활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경험 없음, 있음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심리재활 서비스의 경우 수혜여부를 더미변수 처리하였고(수혜=1, 비수혜=0) 직업재활서비스도 동일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수혜=1, 비수혜=0)

3.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

장애수용은 앞서 이론적 논의(임병규, 2018)와 선행연구(권오형, 2019 ; 김자형, 2018)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 정(+)의 관계에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는 산재장애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척도(10개 항목) 평균을 사용하고 자기효능감의 경우 척도(23개 항목) 평균을 사용하였다.

4. 소득

소득은 어떤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가장 일반화되고 자료 획득이 상대적으로 쉬워 객관적 가계생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로써 활용되며,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없다(여유진, 2002; 이수용·송창근, 2017 재인용). 가계의 소득은 가계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 내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을 말한다. 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수입이 있는데 수입은 소득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가계에 유입되는 화폐의 가치, 예를 들면 예금을 찾은 돈이나 재산매각대금, 부채 등을 포함한다(이승인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산재노동자가 직업복귀 이후에도 장애연금 등 산재보험급

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의 소득 중에 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소득은 산재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서의 소득은 5가지 즉, 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1차년도 소득부터 5차년도 소득으로 세분화 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재 발생 이전의 소득(종전소득)은 재해당시 일당 평균임금을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3-3] 소득의 정의

<p>소득 = 산재소득 + 근로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p> <p>소득의 종류(6가지): 종전 소득, 요양종결 후 1차년도 소득부터 5차년도 소득 까지 각각의 연도별 소득</p>
--

만일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면 고용된 직업복귀자들이 받는 근로소득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에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패널조사대상의 선정

가. 산재보험패널조사 의의 및 취지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5개년에 걸쳐 시행한 자료로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재 요양종결 근로자 82,49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2,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5차에 걸쳐 실시된 조사이다.

5년 동안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 어떤 변수의 추이를 용이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재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해)사업장 특성까지 조사하고 있어 산재근로자 연구에 있어

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산재패널은 시계열적 조사방법을 통해 산재근로자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양기간, 취업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발생에서부터 직업복귀까지의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각 접점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목표달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요인에 대한 중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이다(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4: 2).

나. 패널조사 개요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2018)에 의하면, 산재보험패널 조사의 개략적인 조사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3-4] 패널조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모 집 단	201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82,493명
표본설계	장해등급(6개 범주)별 우선 할당 후 지역(9개 권역)별 비례배분
표본크기	2,000명(장해등급 1~14급 1,650명, 장해등급이 없는 산재근로자 350명)
조사시기	매년 8 ~ 10월
패널교체주기	5년
조사방법	전문면접원 방문에 의한 CAPI 노트북 면접조사
조사내용	인적 특성, 산재보상서비스,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 및 삶의 질, 가구 특성 등

1) 표본설계

산재 발생 후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과정 및 이동 경로, 사회·경제적 특성, 정책 욕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재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집단 정의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산재요양종결근로자(장해등급 없음(무장해자) 포함)를 목표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된 모집단의 규모는 89,921명이나, 주소불명 73명과 외국인 및 제주도 거주자 7,350명을 제외한 82,498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 조사모집단 82,498명 = 89,921명(raw data) - 73명(주소불명) - 7,350명(외국인/제주도 거주자)

3) 모집단 층화 및 표본크기 결정

모집단의 층화(stratification)는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층화변수로 설정하고, 표본의 개별 층 내에서는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며 층간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갖도록 할당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와 기타 사회조사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5개 범주), 지역(9개 권역), 장해등급(6개 범주)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층화변수로 설정하였다.

1~3급은 498명으로 0.6%, 4~7급은 1,616명으로 2.0%, 8~9급은 2,964명으로 3.6%, 10~12급은 15,927명으로 19.3%, 13~14급은 11,153명으로 13.5%였다. 장해 1~3급은 0.6%이므로 표본을 장해등급에 대해 비례배분한다면 12명이 할당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위하여 해당 층에 최소한 30명을 할당하였다. '장해등급 없음(무장해)'에 대해서는 350명을 유의적으로 배분하여 산재장해인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명 중 나머지 1,620명은 다른 장해등급에 대해 비례배분하였다.

[표 3-5] 장해등급별 모집단 구성과 표본할당 결과 (단위 :개별단위)

장해등급	1-3급	4-7급	8-9급	10-12급	13-14급	무장해	계
모집단(명)	(498)	(1,616)	(2,964)	(15,927)	(11,153)	(50,340)	(82,498)
구성비(%)	0.6	2.0	3.6	19.3	13.5	61.0	100.0
할당결과(명)	(30)	(83)	(152)	(815)	(570)	(350)	(2,000)
표본구성비(%)	1.5	4.15	7.6	40.75	28.5	17.5	100.0
기대목표오차(%)	17.7	10.69	7.9	3.41	4.08	5.33	2.21

모집단 권역별 구성비와 표본의 구성비가 동일하도록, 장애등급별 할당결과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표 3-4]는 장애등급별·권역별 모집단 분포를 나타낸다. 별도로 권역별로도 구분하였는데 권역별 층 구분은 조사 관리의 편의성과 조사결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9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표본배분은 지역단위 통계생산에서 자체가중설계를 통해서 분석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할당결과를 계산하였다.

강원도는 3,088명으로 77명이 할당되었으며 95%신뢰수준에서 최대목표 오차가 11.25%이므로 지역통계로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지역과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독립적인 층으로 구분하여 할당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산재보험패널 조사표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특성(A)’ 영역에서는 패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과거 일자리이력을 재확인하고, 지난 조사 이후 변화내역을 파악하였다.

‘산재보상서비스(B)’ 영역은 요양·보상(Ba)과 재활(Bb)로 구분하였다. 요양·보상 부분에서는 장애정보와 보상 관련 내용을 설문하고, 재활 부분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제공받은 교육, 훈련 등의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장애정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번 경험한 패널의 경우 2012년에 요양종결한 산재로 인한 장애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현재 경제활동 판별(D)’ 영역에서는 지난 조사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일자리 변화내용을 파악하여 경제활동 유형을 분류한다. 분류된 유형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상태(E)’에서 해당하는 하위영역으로 이동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상태(E)’ 영역 중 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E-①), 재취업자(E-②), 자영업자(E-③), 무급가족종사자(E-④)로 구분되며, 지난 조사 당시에 응답한 일자리와 동일한 일자리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지난 조사부터 계속되는 일자리(계속)’와 ‘새로 조사된 일자리(신규)’로 재분류하였다. 미취업자 역시 ‘실업자(E-⑤)’와 ‘비경제활동인구(E-⑥)’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원직장복귀자(E-①)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종사하였던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산재근로자를 의미한다.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지난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원직장복귀자(지난 조사부터 계속되는 일자리(E-①-a))’이다. 지난 조사 당시에는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으나 5차년도 조사를 시행하는 당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태라면 ‘원직장복귀자(새로 조사된 일자리(E-①-b))’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이력(F)’영역에서는 지난 조사 이후 1년 간 일자리 이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 시점까지의 일자리 변동여부와 개수, 변동사유 등을 조사하였다.

‘건강 및 삶의 질(G)’영역에서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현황, 사회적 교류, 노후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개인 소득(H)’ 및 ‘가구 일반사항(I)’영역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연간 소득, 주거현황등을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이러한 인과관계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특성과 분석모형의 주요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한 소득 차이를 검증하기 교차분석 및 평균분석을, 또한 산재근로자의 소득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책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선택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은 정책의 탈락집단과 선정집단의 이질성을 관찰되는 변수들을 내생성에 관계없이 공통받침을 조성한 후 양 집단을 최대한 유사한 상태를 조성해 비교를 하는 것인데(박정수, 2015), 특별히 정책효과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상이한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 자주 사용되고, 선택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자주 사용된다(우석진, 2018).

제 4 장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82.7% 높았고 50대 이상이 67.3%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가 84.4%를 차지하였다.

재해당시 직종은 기능원, 장치조작원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61.6%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50대 이상, 고졸 이하, 요양기간은 3~6개월, 재해당시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규모는 30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와 같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616	82.7
	여성	279	17.3
연령	20대 이하	30	1.9
	30대	162	10.0
	40대	337	20.9
	50대	533	33.0
	60대 이상	554	34.3
교육수준	초졸 이하	345	21.4
	중졸	304	18.8
	고졸	714	44.2
	대졸 이상	251	15.6
직종	관리자,전문가,사무직	186	9.3
	서비스,판매,농림어	189	9.5

	업숙련		
	기능원,장치,기계종사	1221	61.6
	단순노무종사	401	20.1
요양기간	3개월 이하	257	15.9
	3~6개월 이하	674	41.8
	6~9개월 이하	389	24.1
	9개월~1년 이하	129	8.0
	1~2년 이하	126	7.8
	2년 초과	39	2.4
장해등급	1~3급	22	1.4
	4~7급	68	4.2
	8~9급	126	7.8
	10~12급	663	41.0
	13~14급	451	27.9
	무장해	286	17.7

2. 기술통계 분석

2013년도 조사당시 2000명의 패널데이터로 시작하여 2017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매년 수백명의 무응답자가 발생하였다. 무응답자는 통계에서 삭제처리를 하였다.

재활서비스 중 의료재활 사업 수혜자가 가장 많다. 2013년의 경우 765명(38.3%)가 사업 수혜를 받았고, 사회·심리 재활서비스는 464명(23.2%)이 직업재활 서비스는 283명(14.2%)가 수혜를 받았다.

[표 4-2] 패널데이터 중 연도별 재활서비스 수혜자

재활서비스	제공여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의료재활	미제공	1,235	1,099	1,045	1,014	985
	제공	765	704	659	646	629
사회·심리재활	미제공	1,536	1,377	1,296	1,268	1,236
	제공	464	426	408	392	378

직업재활	미제공	1,717	1,538	1,451	1,418	1,382
	제공	283	265	253	242	232

[표 4-3]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변 수		2013년	2017년	전체
자아존중감 (4점 척도)	평균	2.96	3.03	2.99
	표준편차	0.46	0.43	0.45
	왜도	-0.20	-0.53	-0.37
	첨도	-0.007	0.31	-0.08
자기효능감 (5점 척도)	평균	3.43	3.42	3.43
	표준편차	0.47	0.46	0.47
	왜도	0.07	-0.00	0.04
	첨도	0.24	0.57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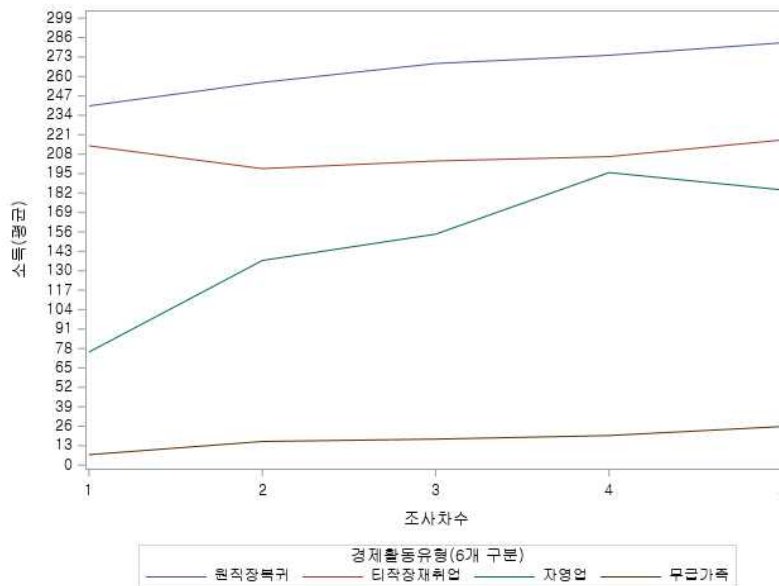
[표 4-4] 장애등급별 직업복귀 통계

장애급수	경제활동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급	원직장복귀자	3	2.7	3.2	2.8	2.7
	재취업자	0	0	0	0	0
	자영업자	0	0	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0
	실업자	0	0	0	0	0
	비경제활동인구	97	97.3	96.8	97.2	97.3
4~7급	원직장복귀자	29.7	25.5	23.7	20.8	17.7
	재취업자	12.2	24.2	38.6	41.5	38.9
	자영업자	3.4	5	2.4	6	6.3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0
	실업자	5.4	4.8	0.7	1.7	1.5
	비경제활동인구	49.3	40.5	34.6	30.1	35.7
8~14급	원직장복귀자	34	30.7	30.1	29.1	27.9
	재취업자	33	45.4	47.5	50.7	49.7
	자영업자	2.9	5	5.6	5.4	5.9
	무급가족종사자	0.3	0.6	0.5	0.6	0.6

	실업자	7.8	4.6	3.1	2.1	3.3
	비경제활동인구	22.1	13.7	13.2	12.1	12.5
무장해	원직장복귀자	39.6	33.7	31.4	31.1	29.7
	재취업자	36.8	46.7	46.2	47.5	48.5
	자영업자	5.3	5.7	6.7	7.1	9.8
	무급가족종사자	0.7	0.8	0.9	1	0.7
	실업자	6.2	2.7	4.2	2	2
	비경제활동인구	11.4	10.5	10.6	11.4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체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요양종결자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이 증가했고, 이는 타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보다 높았다. 타직장 재취업자의 경우 2차년도(2014)에 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타직장으로의 이직으로 인한 연봉감소 후 적응기간으로 판단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차년도(2013)에 창업으로 인한 고정비용으로 소득이 가장 낮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소득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4-1] 경제활동유형별 연도별 소득 평균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문항의 신뢰도 분석

가.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문항의 표준화된 Cronbach's 알파는 .811이고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p < .0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8번 문항을 제거할 경우 Cronbach's 알파는 .830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8번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다른 문항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으며, 8번 문항을 제외한 경우 분석에 사용할 만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항 8번을 제외한 총 9개 문항의 측정치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연속형 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표 4-5] 자아존중감 설문항목 신뢰도 분석 결과

항 목 (*는 역점수 문항)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78459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0.790605
*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790243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0.785667
*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0.799948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779657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0.777255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0.830545
*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0.796023
*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807577

나. 자기효능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문항의 표준화된 Cronbach's 알파는 .908이고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p < .0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자기효능감 설문항목 신뢰도 분석 결과

항 목(*는 역점수 문항)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1)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0.903247
* (2) 나는 일을 해야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0.903997
(3)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0.903495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 할 수 있다	0.902114
* (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0.903327
* (6)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0.902583
* (7)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도 안한다	0.902439
(8)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0.904427
(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0.904498
* (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0.904112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있다	0.903131
* (1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0.90353
(13)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0.910506
* (14)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0.905484
(15) 자신감이 있다	0.902523
* (16) 나는 무슨 일을 쉽게 포기한다	0.902225
* (17)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0.902691
* (18)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0.904277

(19) 친구가 보고 싶으면 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0.908496
*(2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0.906198
(21) 첫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0.911507
*(22)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0.906879
(23) 지금의 내 친구들은 나의 사교성 때문에 사귀었다	0.91219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그림 4-2]는 주요변수 간의 기술통계량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66694'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의 값을 보이고 소득변화량과 자아존중감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23051'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의 값을 보이며 소득변화량과 자기효능감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19808'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주요 연속형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 계수, N = 6830 H0: Rho=0 가설하에서 Prob > r										
구분	복귀 유형	자아 존중	자기 효능	직종	장해 등급	연령	학력	성별	재활 서비스	자격 증
복귀 유형	1	-0.12472 <0.001	-0.08872 <0.001	0.01952 0.1067	-0.01715 0.1564	0.06774 <0.001	-0.1455 <0.001	-0.01856 0.1251	-0.05516 <0.001	0.02 0.0985
자아 존중	-0.12472 <0.001	1	0.64494 <0.001	-0.1728 <0.001	0.09705 <0.001	-0.11277 <0.001	0.16795 <0.001	-0.00943 0.4358	0.04984 <0.001	-0.14957 <0.001
자기 효능	-0.08872 <0.001	0.64494 <0.001	1	-0.1768 <0.001	0.09816 <0.001	-0.16599 <0.001	0.21855 <0.001	-0.08719 <0.001	0.05875 <0.001	-0.16949 <0.001
직종	0.01952 0.1067	-0.1728 <0.001	-0.1768 <0.001	1	-0.0701 <0.001	0.23098 <0.001	-0.30491 <0.001	-0.08714 <0.001	-0.03324 0.006	0.13077 <0.001
장해 등급	-0.01715 0.1564	0.09705 <0.001	0.09816 <0.001	-0.0701 <0.001	1	-0.08813 <0.001	0.01106 0.3606	0.10502 <0.001	0.52114 <0.001	-0.00297 0.8064
연령	0.06774 <0.001	-0.11277 <0.001	-0.16599 <0.001	0.23098 <0.001	-0.08813 <0.001	1	-0.54978 <0.001	0.12048 <0.001	-0.0615 <0.001	0.20973 <0.001

최종 학력	-0.1455 <0.001	0.16795 <0.001	0.21855 <0.001	-0.30491 <0.001	0.01106 0.3606	-0.54978 <0.001	1	-0.14541 <0.001	0.00274 0.8207	-0.25822 <0.001
성별	-0.01856 0.1251	-0.00943 0.4358	-0.08719 <0.001	-0.08714 <0.001	0.10502 <0.001	0.12048 <0.001	-0.14541 <0.001	1	0.02367 0.0504	0.12967 <0.001
재활 서비스	-0.05516 <0.001	0.04984 <0.001	0.05875 <0.001	-0.03324 0.006	0.52114 <0.001	-0.0615 <0.001	0.00274 0.8207	0.02367 0.0504	1	0.0318 0.0086
자격 증	0.02 0.0985	-0.14957 <0.001	-0.16949 <0.001	0.13077 <0.001	-0.00297 0.8064	0.20973 <0.001	-0.25822 <0.001	0.12967 <0.001	0.0318 0.0086	1

제 3 절 가설검증

제 3 절에서는 직업복귀유형(원직복귀, 타직장 재취업, 자영업), 장애에 대한 수용정도(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와 소득변화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fixed model)과 성향점수매칭추정법 분석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산재노동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1. 고정효과 모형 및 성향점수매칭추정법 분석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기는 하나 비용, 윤리, 기간문제 등의 이유로 임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우석진, 2018), 실험대상들을 실험집단에 무작위적으로 할당하기 어려워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통제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이석원 외, 2008). 통상적인 조정평균차나 OLS 등은 선택편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구변수를 활용한 모형이나 DID모형, 통제함수 모형, 무작위 성장모형 등 다시점 자료분석 모형과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등이 사용되었다(이석원 외, 2008).

성향점수매칭추정법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근이웃(nearest neighbor) 매칭법이라고 해서 관측치를 비교대상으로 성향점수가 가장 가까운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일정 거리(caliper)를 정해 놓고 그 거리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해진 거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비교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우석진, 2018).

[표 4-8] 성향점수매칭결과

Matching Information	
Distance Metric	Propensity Score
Method	Greedy Matching
Control/Treated Ratio	1
Order	Descending
Caliper (PS)	0.015356
Matched Sets	221
Matched Obs (Treated)	221
Matched Obs (Control)	221
Total Absolute Difference	1.581009

성향매칭 후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9]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업복귀유형	1948	2.139117	1.090958	1	4
자아존중감	1948	3.06337	0.453661	1.444444	4
자기효능감	1948	3.440697	0.430901	1.73913	4.826087
직업유형	2210	3.068778	1.323525	1	5
장해등급	1948	1.182238	0.471208	1	4
연령	1948	3.579055	1.090847	1	5
학력	1948	3.543635	1.069081	1	5
성별	1948	1.204312	0.403302	1	2
자격증	1948	1.567762	0.495514	1	2
직업재활서비스	1948	1.839836	0.366853	1	2
의료재활서비스	1948	1.573409	0.494709	1	2
사회심리재활서	1948	1.800308	0.399872	1	2

경제활동유형 구분				
직업복귀유형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원직복귀	635	32.6	635	32.6
타직장재취업	814	41.79	1449	74.38
자영업 창업	92	4.72	1541	79.11
무급가족 외	407	20.89	1948	100

직업종류				
직종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관리,사무,전문	460	20.81	460	20.81
서비스,판매	77	3.48	537	24.3
농림,기능,기계	931	42.13	1468	66.43
단순노무	335	15.16	1803	81.58
무직 등	407	18.42	2210	100

자격증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있다	842	43.22	842	43.22
없다	1106	56.78	1948	100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남성	1550	79.57	1550	79.57
여성	398	20.43	1948	100

재활서비스 유형별 수혜 여부					
종류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직업재활서비스	수혜	312	16.02	312	16.02
	비수혜	1636	83.98	1948	100
의료재활서비스	수혜	831	42.66	831	42.66
	비수혜	1117	57.34	1948	100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수혜	389	19.97	389	19.97
	비수혜	1559	80.03	1948	100

2. 직업복귀유형의 소득변화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

이하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SAS통계프로그램에 투입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본다. 통제변수로 직업종류, 학력, 자격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유는 산재노동자와 같은 중도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이후에 재해이전 사업장으로 복귀하느냐가 이후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발생 이전과 같은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재해이전 노동자의 직업종류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정호, 2002) 고정효과 모형 및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을 통한 패널분석결과는 아래 [표 4-10]의 내용과 같다.

[표 4-10] 소득에 대한 고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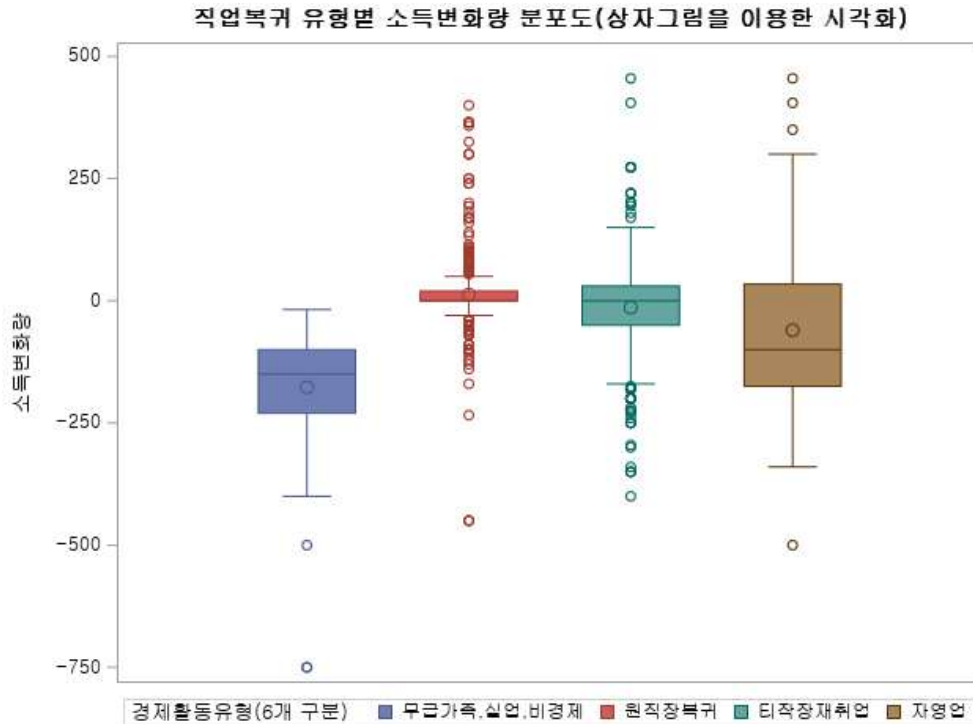
R-Square	Coeff Var	Root MSE	wage Mean
0.868621	-113.6967	47.17787	-41.4945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직업복귀_원 직장	179.9241	B	8.54606	21.05	<.0001
직업복귀_타 직장	119.1817	B	5.917319	20.14	<.0001

직업복귀_자 영업	52.51448	B	11.97142	4.39	<.0001
직업복귀_ 기타	0	B	.	.	.
자아존중감	6.559251		4.474094	1.47	0.1428
자기효능감	1.529761		4.759257	0.32	0.7479
직종_관리/ 전문/사무	50.56505	B	8.854305	5.71	<.0001
직종_서비스 /판매	29.16371	B	10.2497	2.85	0.0045
직종_농림/ 기계/장치	41.93026	B	6.464584	6.49	<.0001
직종_단순노 무	0	B	.	.	.
직종_무직	0	B	.	.	.
장해등급	0	B	.	.	.
연령	-6.10815		4.442408	-1.37	0.1693
교육	11.80079		14.92038	0.79	0.4291
성별_남성	0	B	.	.	.
성별_여성	0	B	.	.	.
재활서비스_ 수혜	123.8037	B	32.7888	3.78	0.0002
재활서비스_ 비수혜	0	B	.	.	.
자격증_유	1.539741	B	12.57429	0.12	0.9026
자격증_무	0	B	.	.	.
조사차수	7.193761		0.94529	7.61	<.0001

직업복귀 유형에 따른 소득변화량 분포를 보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의 경우 타직장복귀자나 자영업자 보다 중앙값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4분위 수 범위가 좁았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의 특성상 가장 넓은 사분위수 범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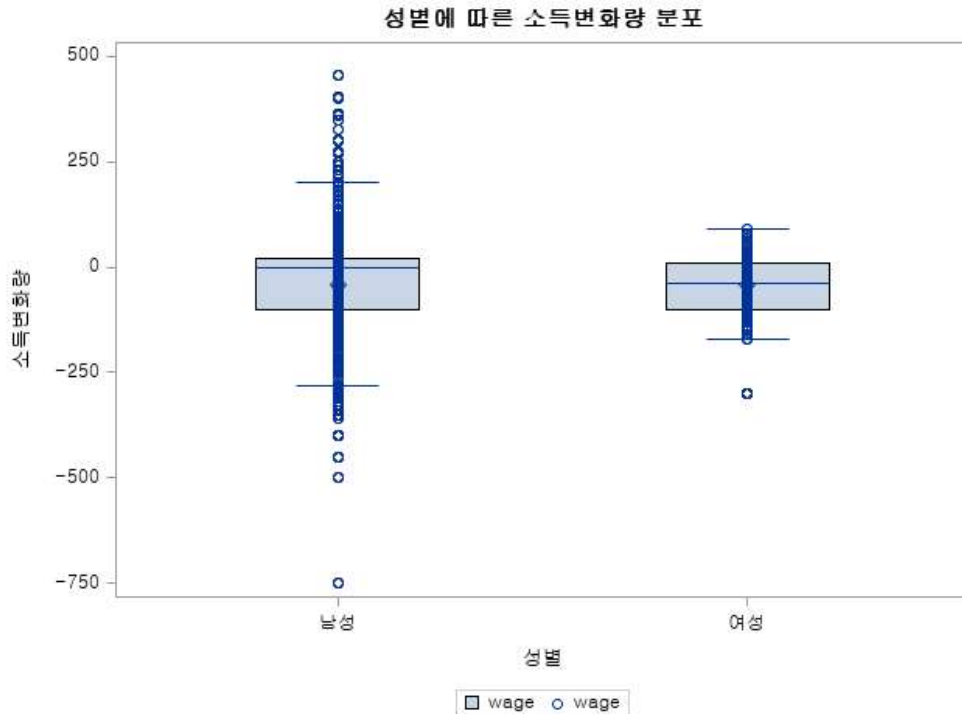
[그림 4-2] 직업복귀 유형별 소득변화량 분포도



대체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관리/사무/전문직(job2=1)의 경우가 가장 큰 양(+)의 소득변화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원직장에 복귀한 서비스/판매직(job2=2)과 농림/기능/기계(job2=3) 및 단순노무(job2=4)의 경우에도 타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양(+)의 소득변화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창업한 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표본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소득변화량의 분포는 [그림 4-3]에서 볼 수 있는데 남성의 소득변화량 중앙값이 여성보다 높았고 사분위수 범위는 서로 비슷하였으나 최대값과 최소값은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성별에 따른 소득변화량 분포도



소득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패널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결정계수 (R-Square, R^2)를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종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결정계수가 상당히 커야 한다. 실제로 결정계수는 관찰된 종속변수 값과 회귀모형에 의해 예측된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클수록 예측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길곤, 2017:400) 본 연구는 총 2,210개의 관측치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 값은 86.8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직업복귀 유형에 따른 소득변화의 효과는 원직복귀가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타직장 재취업은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H_0 : 직업복귀 유형 변수의 모회귀계수 $\beta_1 = 0$ 이다

[표 4-10]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이 5%인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고정효과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재해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와 그 결과를 같이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근로복귀한 중도장애인의 월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산재노동자와 같은 중도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장애인으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근로복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재진입이라는 지점에서 장애이전의 노동시장특성과 장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재진입이후의 월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정호, 2002) 그리고 장애 이후 같은 직장인지 여부의 변수는 전체 사업장의 규모에서 유의미한 임금격차를 나타냈다.(이정호, 2002)

구체적으로 기타복귀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이하 ‘기타복귀자’)에 비해 원직복귀자의 경우 연간 179만원의 양(+)의 소득변화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복귀자에 비해 타직장복귀자의 경우 연간 119만원의 양(+)의 소득변화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복귀자에 비해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연간 52만원의 양(+)의 소득변화량을 나타냈다. 패널조사 차수(1차 년도~5차 년도)가 커질수록 5%의 유의수준에서 연간 약 7만원의 양(+)의 소득변화량이 관찰되었다.

직업복귀유형 중 원직장복귀나 타직장복귀의 경우 해마다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소득증가분이 반영되므로 창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소득의 절대값의 비교가 아닌 소득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직업복귀유형간(원직, 타직장, 자영업) 상대적인 소득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므로 각각의 직업복귀유형간 가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후 산재노동자가 재해사업장에 복귀한 경우가 원직장에서 이직하여 타직장에 복귀한 경우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증가폭을 보였다.

3. 장애에 대한 수용과 소득변화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

먼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두고 패널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2,210개의 관측치를 통해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소득변화량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효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자기효능감 또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해 귀무가설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14.28%의 유의수준에서는 소득변화량과의 관계에 있어 정(+)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래에 언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직업복귀 이후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시각장애인 총 10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장애수용과 생활만족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긍정적 장애수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오윤진, 2017)

한편 다른 선행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2차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1,624명을 대상으로

직장요인(직무몰입과 일자리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직무몰입, 일자리만족도, 장애수용 간의 각 경로는 모두 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몰입, 일자리만족도, 장애수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무몰입은 일자리만족도와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높였고, 일자리만족도는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에 직무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관계에 일자리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직무몰입을 거쳐 유의하였다.(윤미리 외, 2019)

4. 조절변수로서의 재활서비스 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에 있어 해당 변수에 따라 인과관계의 크기가 달라질 때 이를 사용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정책변수로서의 전체 재활서비스는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등 재활서비스의 수혜에 따른 소득변화량의 효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해 귀무가설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한편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재활서비스를 받은 원직복귀자가 5%의 유의수준에서 소득변화량에 대해 음(-)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비스를 받은 타직장복귀자가 5%의 유의수준에서 소득변화량에 대해 음(-)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재활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병상태가 보다 위중하다고 볼 수 있어 장애등급을 통제변수로 넣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감소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소득변화량의 관계에 있어 재활서비스를 받는다는 5%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경우 소득변화량과의 관계에 있어 재활서비스의 조절효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지 못해 귀무가설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표 4-11]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상호작용항 통계분석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원직복귀*재활서비스 유	-39.8013	B	14.99308	-2.65	0.008
원직복귀*재활서비스 무	0	B	.	.	.
타직장복귀*재활서비스 유	-20.5855	B	9.396145	-2.19	0.0286
타직장복귀*재활서비스 무	0	B	.	.	.
자영업*재활서비스 유	-9.96318	B	21.64348	-0.46	0.6453
자영업*재활서비스 무	0	B	.	.	.
무급.실업*재활서비스 유	0	B	.	.	.
무급.실업*재활서비스 무	0	B	.	.	.
자아존중감*재활서비스 유	23.2067	B	8.880062	2.61	0.0091
자아존중감*재활서비스 무	0	B	.	.	.
자기효능감*재활서비스 유	-7.17996	B	9.5755	-0.75	0.4535
자기효능감*재활서비스 무	0	B	.	.	.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2]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구분	가 설	채택여부
가설1	장해에 대한 조기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2	장해에 대한 조기수용에 있어 재활서비스를 받았으면 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	불채택
가설3	원직장복귀자가 타직장복귀 또는 자영업자 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4	타직장복귀자가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5	직업복귀유형에 있어 재활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다.	불채택

제 4 절 해석과 토론

고정효과 모형과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직장에 복귀한 유형에 있어 재해당시 소속된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소득 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재활서비스 제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 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될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직업복귀 후 소득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 지지를 얻지 못해 기각하였다.

[표 4-13] 독립변수별 분석결과 요약

통계적 유의	원직장복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재활서비스 제공
	원직>타 직	타직>자 영업			
소득변화	유의미	유의미	약한 유의미	-	유의미

1. 직업복귀유형과 객관적인 삶의 질

위에서 제시된 양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복귀 유형(경제활동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 원직복귀는 전체표본(1,948) 중 32.6%(635), 타직장재취업이 41.79%(814), 자영업 창업이 4.72%(9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 등 그 밖의 경우가 20.89%(407)이었고 이들의 직종은 농림/기능/기계직이 42.13%(931), 관리/사무/전문직이 20.81%(460), 단순노무직이 15.16%(335)이었으며 남성은 79.57%(1550), 여성은 20.43%(398)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자로 복귀한 산재장해인이 74.3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 중 하나인 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원직장, 타직장, 자영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회귀계수의 크기에 있어서는 원직복귀의 경우가 이들 세가지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재해이전에 소속된 원직에 다시 복귀한 경우가 산재장해자의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인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장해자가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체장해로 인해 타직장에 재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노동력 손실에 대한 사업주의 불신이나 지원미비 등의 이유로 재해이전의 소득보다 더 적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승욱·신태식, 2010)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의 내용 중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로 복귀한 산재근로자가 본인의 일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 중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산업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1차 년도 조사 시 가장 높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애등급별로는 1~7급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다’

‘미취업자인 산재근로자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으로는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종결 이듬해인 1차년도 조사에는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3.70점)이 높은 편이나 점차 하락하고, 2차년도 조사부터는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의 점수가 높다. 장애등급 1~7급에서는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장애등급 8급 이하에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이 가장 주요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2001년 미국 미네소타주 산업재해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당시 고용주에게 복귀했을 경우 임금은 105%의 보존율을 보이지만, 상이한 고용주에게 복귀했을 경우 91.8%의 임금보존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달엽, 이상진, 최윤영, 최은숙, 문성현, 이승욱, 전명수, 2007).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승욱(2008)의 연구결과 원직장 원직복귀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이었는데 비해 타직장 타직복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 해당연도 소득을 산재소득(h004005)과 근로소득(e1003024, e2004017) 혹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e3005008)의 합계로 정의한 다음 소득변화량(해당연도 소득-재해당시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직업복귀유형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원직장복귀, 재취업, 창업간의 상대적인 소득변화량 차이를 비교한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유형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 중 하나인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해이전 소속된 원직으로의 복귀는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앞서 본 내용과 같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직복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객관적인 삶의 질

자아존중감(estesteem)과 자기효능감(efficacy)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향매칭에 의한 표본전체의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 자아존중감(4점 척도) 수준은 보통(2)이상의 평균값(3.06)을 보여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효능감(5점 척도)은 보통(3)에 근접한 평균값(3.44)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각의 표준편차는 0.45와 0.43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만이 유의수준 14.28% 범위에서 소득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설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서도 자기효능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득의 변화량은 자기효능감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머슬로(Maslow, 1954)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계층제 방식으로 충족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킨 후 점점 안정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차례로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직업복귀와 관련한 동기부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Klassen & Usher, 201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영, 2014).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대학생활적응(박미화, 2015), 사회참여(박연주, 하경희, 2014), 재활동기(양정빈, 이종환, 2011)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 더 많은 노력 투자, 역경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Klassen & Usher, 2010).

또한 장애 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장애 수용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장애로 유발된 상실감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숙, 양희택, 2013).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 수용의 특징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 수용의 특징을 보이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평균과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 집단’보다 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 모두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연은모, 최효식, 2019).

그리고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 고용획득과 유지, 직장복귀 등 사회통합을 돕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황성혜, 임원균, 2012; 엄정혜, 2012; 최은경, 2012; 김희영, 조성재, 2009). 또한 재활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는데도 영향을 주어(이지아, 2012) 재활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여겨지며, 삶의 질과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박자경, 엄명룡, 2009). 즉 장애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정승원, 2014).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직업복귀 이후의 소득변화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유형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공단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수혜여부와 소득변화량 간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재활서비스의 경우 수혜를 받은 자와 산재근로자와 수혜받지 못한 자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치중해 있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소득변화량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재활사업의 수혜대상의 상당수가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보니 재활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이 분석된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패널데이터 1~5회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종단연구를 진행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인 각 재활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종속변수인 소득변화량과 삶의 질 지표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실증분석을 한 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복귀 유형과 소득변화량의 관계를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가 타직장이나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에 비해 직업복귀 후 소득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소득변화량과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산재장애자들은 치료 종결 및 직업복귀 후 소득변화량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재활 사업은 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등 직업능력의 회복과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혜자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정(+)의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2 절 재활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재활서비스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 수혜집단은 전체표본 중 16.02%(312)를 차지하였고 의료재활서비스의 경우 42.66%(831)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경우 19.97%(389)를 차지하였다.

[표 5-1] 산재보험패널조사 재활서비스 체계

종류	내용
직업재활서비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업훈련, 창업지원사업, 작업능력평가, 내일찾기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사회재활서비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역량강화지원, 재활스포츠, 지역사회자원연계, 취미활동지원

둘째, 소득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서비스 수혜여부가 소득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같은 산재보험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임병규(2018)의 연구결과 의하면 고정효과 모형에서 재활사업 수혜에 따른 근로소득의 효과는 의료재활이 5%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 직업재활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인근이웃매칭법인 psmatch 방법과 가중치를 이용한 방법인 ipw를 통해 성향점수매칭으로 분석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사회·심리재활이 근로소득에 각각 1%, 10%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에 의하면 의료재활은 정(+)의 방향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았고, 직업재활은 psmatch에서는 정(+)의 방향, ipw에서는 부(-)의 방

향이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의료재활이 근로소득에 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은 의료재활 수혜자 특성상 중증인 산재근로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하향편의(downward sel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재활도 고정효과모형에서 근로소득에 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은 직업재활 수혜자 상당수가 원직복귀가 되지 않고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향편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평가는 가치 초점(value focus), 사실과 가치의 상호의존성(fact-value interdependence), 현재와 과거지향성(present and past orientation)의 본질을 갖고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며 목표와 목적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치를 명료화(clarification)하고 비판(critique)하는 데 기여한다(남궁 근 외, 2013).

일반적으로 정책성과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유사평가와 공식적 평가, 결정이론적 평가가 있는데 [표 5-2]와 같다(남궁 근 외, 2013)

[표 5-2] 정책평가를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

접근방법	목표	가정	주요 형태
유사평가	정책결과에 대한 신뢰성있고 타당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을 사용	값어치 또는 가치의 측정이 자명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음	사회실험 사회체제회계 사회감사 연구와 실제의 종합
공식적 평가	정책-프로그램의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정책결과에 대한 신뢰성있고 타당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을 사용	정책결정자 및 관료들의 공식적으로 선언한 목표와 목적들이 값어치 또는 가치의 측정에 적합	발전적 평가 실험적 평가 과거지향적 과정 평가 과거지향적 결과 평가
결정이론적 평가	다수의 정책 관련자들에 의하여 명백하	정책관련자들의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평가가능성 사정 다속성 효용분석

	게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결과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을 사용	더불어 잠재적인 목표와 목적들이 값어치 또는 가치의 측정 에 적합	
--	---	---	--

재활서비스 직업복귀정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성과의 평가는 이 중 공식적 평가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지향적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적용되어 요양종결자에 대한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정책성과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직업복귀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업복귀의 최우선 목표를 원직복귀에 맞추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직복귀 지원제도는 직업재활급여 중 원직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선행연구결과(이승욱, 신태식, 2010)에 의하면 사업주들이 산재근로자를 복귀시킨 주된 이유가 업무숙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는데, 이는 산재근로자가 치료 이후 원직무의 핵심직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주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산재근로자의 2차 산재발생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산재발생에 대한 사업주들의 정서적 우려감을 덜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상공회의소 연구결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료수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들이 2차상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2차상해보상제도(second injury fund)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조성재, 2009). 따라서 2차 상해에 대한 사업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에서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시 해당근로자가 2차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승욱, 신태식, 2010).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는 산재근로자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친숙한 직업생활로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 성공적인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이승욱, 김선규, 2014). 요양종결 후 원직복귀는 주요한 직업복귀 경로로서 고용유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이승렬, 2004) 퇴직을 한 산재장애인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산재 후 원직복귀 여부는 지속적인 삶의 만족정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나타났다(전보영 등, 2010).

그리고 본인의 산재로 인한 기능손실에도 불구하고 타직복귀에 비해 임금보존율이 높아 경제적인 이득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미국 미네소타주 산재보험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산재당시 고용주(원직장복귀)에게 복귀했을 경우 임금이 101.6%인데 비해, 상이한 고용주(타직장복귀)에게 복귀했을 경우 임금이 78.7%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원직복귀는 사회적 측면에서 타직복귀에 비해 비용절감효과가 높아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표 5-3] 2011년 미네소타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효과

고용성과	비용(달러)	직장복귀 임금보존율(%)
산재당시 고용주	5,160	101.6
상이한 고용주	14,290	78.7
직장미복귀	12,000	-

출처: Minnesota Workers' Compensation System Report(2011)

그리고 이승욱(2008)이 2007년에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특성에 따른 가정의 월평균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원직장 원직무복귀자의 가정 월평균소득이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타직장 타직복귀는 186만원으로 나타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복귀하는 것이 다른 사업주에게 복귀하는 것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재근로자의 조기원직복귀가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이달엽 외, 2010). 첫째, 휴업급여의 감소로 인한 산재보험기금 절감, 둘째, 요양기간의 단축과 의료 및 장애관련 비용의 감소, 셋째, 산재요율의 조정을 통한 보험료 경감, 넷째,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방지와 이직감소, 다섯째,

노동력의 대체에 필요한 직업배치와 훈련비용 절감, 여섯째, 산재급여보다는 임금지급을 통한 경제성 증대이다.

즉 직장복귀지원사업의 경우 성공적인 원직복귀와 고용안정을 위해 재해 직후, 요양 중, 직업복귀 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산재노동자의 재해당시 고용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직업복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획일적인 직업복귀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복귀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단절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초기 적극적인 타직장 재취업 관련 서비스(직업훈련신청 등)를 제공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관리직, 사무직 등의 경우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직업복귀서비스는 역시 일반행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상의하달식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한정시키게 되고 전문적·개별적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 전달체계⁵⁾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업복귀를 위한 여러 재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접근이 쉽고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이태중, 이재호, 2020)

셋째, 이를 위해 고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이 필요하다. 여기에 3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상 데이터베이스는 성별, 연령,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이고, 직업재활 능력 데이터베이스는 장애 정도, 운동 기능, 인지 수준, 일상생활 수준 등을 스스로 수행, 도움이 있으면 수행, 그리고 수행하지 못함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눠 점수화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 기능 데이터베이스는 장애인의 재활 기능에 관한 코드와 재활 기능 코드에 따른 기능 등급과

5) 사회복지제도 전달체계에 대한 주요 원칙으로는 ① 접근용이성의 원칙, ② 책임성의 원칙, ③ 포괄성의 원칙, ④ 평등성의 원칙, ⑤ 적절성의 원칙, ⑥ 통합성의 원칙, ⑦ 전문성의 원칙, ⑧ 지속성의 원칙 등이 있다.(이태중·이재호, 2010)

같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허만형, 2012). 이러한 정보로써 적시적절한 원직장 복귀 또는 타직장 재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업적응과 직장복귀를 위한 의사결정에는 먼저 이들의 직업재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들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Fogarty & Beck, 1995).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에서 밝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04)

- ① 과제 수행능력과 작업 집중력을 포함하는 산재 이후의 인지적 장애여부
- ② 무용감, 불안, 회피반응을 포함하는 정서적 영역
- ③ 사회화 기술과 의사소통,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응하는 양식을 포함하는 사회환경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이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더욱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이다(Fogarty & Beck, 199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사업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재활 서비스의 강화이다. 많은 연구에서 산재근로자는 산재발생 이후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보고되는 심리증상이 우울인데 산재환자 중에서 61%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이중 28.4%는 중증 우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희, 2003). 그러나 이 정신적 문제가 직업복귀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산재장애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중 요양종결 후(직업복귀 초기)에 자아존중감이 이후 소득변화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따라서 치료초기부터 장애의 조기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후에도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직업복귀와 지속적인 유지를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원직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개발이다. 재활서비스는 산재

노동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충현, 2017)

셋째, 타직장 재취업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고도화이다. 이번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는 원직장 복귀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변화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신청 등 직업재활서비스와 재취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취업 이후 재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와 4차년도가 각각 3년, 1년 후인 5차 년도에 조사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1차 년도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등 연도별 변화정도 추이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양종결 직후 1차년도 조사시점부터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산재장애인의 경우(bias) 소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재활서비스를 신청하는 산재장애인의 경우 당초부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해당(bias)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에도 원직장 원직무, 원직장 타직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타직장에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직장 원직무와 타직장 타직무로 나누어 분석해 볼 때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다면 보다 중도장애인과 선천장애인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소득변화량에서 산재소득은 산재장해인의 재해이전 임금이나 보수를 의해 산정되어 이를 포함하여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로서 소득을 파악하였으나 엄밀히 장해연금과 같은 산재소득은 산재장해인의 노력여하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므로 분석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길곤 (2017),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제2판)』, 문우사
- 고길곤 (2019), 『데이터 시각화와 자료분석』, 박영사
- 고용노동부(2012),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년~2014년)』
-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18),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울산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2014),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유저 가이드』, 근로복지공단
- 김명희·김용규·김인아·김현주·이화평·임준정·최경희·주영수 역(2008),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Wooding, J. and Levenstein, C., 1999, *The point of Production: Work environmen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한울아카데미
- 남궁 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역(2013), 『정책분석론』 제5판, William N. Dunn, 법문사
- 대한민국정부(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2002),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이원형·한종수(2015), 『경제학원론 Secret Note』, 피앤씨미디어
- 이태종·이재호(201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이현주·이달엽·이홍무·최윤영·최경숙·김통원(2004),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원
- 김승곤(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과 사회과학, 16, 155-177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127-153

우석진(2018), 『정책분석을 위한 STATA』, (주)지필미디어
정이환(2013),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하연섭(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제2판, 다산출판사
허만형(2012), 『사회복지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신문·잡지 기타>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On-line],
Available: [http://www.who.int/healthinfo/survey/
whoqol-qualityoflife/en/](http://www.who.int/healthinfo/survey/whoqol-qualityoflife/en/)

<논문>

강동욱(2017),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영향요인 연구 - 시간의존 Cox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 GRI연구논총, 2017년 제19권 제3호
강희태·임형준·김용규·주영수·이화평·김정민·권영준(2006),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및원직복귀예측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18(3), 221-231
고관우·남진열(2016),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1; 368-402
고광명(2018), “청각장애인 직업유지 영향요인 분석”,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민석(2015), “장애노인의 장애수용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Vol.17
공마리아·강윤주(2013), “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 삶의 만족도가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0(3); 463-480

- 권도용(1994), “사회재활 개념의 분석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1, 269-296
- 권성현(2019), “장애인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171-207
- 권영훈(2018),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형·문재우(2018),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Vol.8 No.6
- 권오형(2019),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9 no.6, 2019년, pp.97 - 103
- 권유경(1998), “한국 장애인의 고용과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충훈·최희철(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pp.149-172
- 김경숙(2009), “뇌졸중 후 편마비인의 체육활동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4), pp.1-18
- 김미영(2014),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지행동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8(1), 53-79
- 김선미·김은하(2015),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389~411
- 김성희·이연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2000),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영(2018), “발달장애인이 진행한 장애이해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 태도에 미치는 효과 탐색: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64; 55-80
- 김영애·임유진(2018),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39; 108-126
- 김자영(2018),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8(3), 2018, 363-391
- 김정희(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영재와 영재교육, 5, 5-24.
- 김종일(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 ~ 87
- 김태우(2015),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장애수용성이 스포츠활동 몰입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경(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0(0), pp.23-38
- 김희영·조성재(2009),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 장애정도, 장애부위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19(1). pp.167~186
- 류만희·김송이(2009),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11(2), 161-184
- 박미량(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화(2015), “장애대학생의 가족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4), 147-168
- 박수경(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재활

- 복지, 제16권 제3호. pp. 293~318
- 박수경·안치민(2006),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예측요인”, 『사회복지정책』 26, 177-194
- 박연주·하경희(2014),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재활복지, 18(4), 75-93
- 박은주(2014),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자경·김종진·강용주(2009), “장애인 근로자 직무만족도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1-109
- 박자경·엄명룡(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pp.1~23
- 박정수(2015), “반복적 정책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지순(2015), “장애인 취업자에게 제공된 직무 관련 배려경험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9(3): 177-184
- 박현숙·손민정·송진영(2013),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및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23 No.1
- 박현숙·양희택(2013),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p.67-84
- 박현숙·양희택(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 백광·서연태·김연수(2014), “지체장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장애수용, 자아

- 존중감 및 행복감의 관련성”,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4), pp.135-146
- 백연옥(2005),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영승·김성희·유미·전춘수(2001)a, “자아수용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백영승·김성희·유미·전춘수(2001)b, “자아인식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송지연(2018),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취업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2012),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직무만족도 간 장애수용과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28(4), pp.329-346
- 송진영(2016), “산업재해요양 이후 원직장복귀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3), pp.65-94
- 신승배(2009),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85-312
- 신주영·최은영·공마리아(2015),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재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501-522
- 양재성·오순복·임성수(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 후 장해판정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3), 153-177
- 양정빈·이종환(2011),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재활동기 간의 인과관계 모형분석”, 보건사회연구, 31(3), 223-250
-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27 No.3
- 엄정혜(2012), “장애수용·장애정체감·사회적지지가 장애인의 비전통적 진로 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유진(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연은모·최효식(2019),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 수용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제19권 제3호, pp. 133-152
- 오윤진·이순민(2017), “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3(3), pp.103-123
- 오현복(2010),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동철(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강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pp.86 ~ 98
- 윤조덕·박수경(1998), “산재장해인 삶의 질과 재활정책의 과제”, 5(2):103 ~ 123
- 이경희(1998), “중도장애인의 사회적응”, 장애인고용, 보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달엽·박영준·박혜전·조성재·조주현(2010),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이달엽·이상진·최윤영·최은숙·문성현·이승욱·전명수(2007), “재활급여 도입 방안 연구: 직장복귀 및 직업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노동부
- 이민아·송리라(2014), “소득·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 December 2014, Vol.37(4), pp. 89 ~ 114
- 이석원·김준기·이영범·장경호·이민호(2008),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한국행정학보, 42(1), pp. 197-227
- 이선우(2001), “장애인(障礙人)의 취업형태(就業形態)와 소득(所得)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요인(要因)에 대한 분석(分析)”(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보건사회연구, 2001, Vol.21(2), p.106
- 이수용·송창근(2017),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2017.6. Vol.21, No.2, pp.139~167
- 이승렬(2004), “요양종결 이후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 분석”, 노동경제론집, (3), 25-52
- 이승렬(2007), “산재근로자의 전직행동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55(2), 5-34
- 이승렬(2005),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 노동정책연구, March 2005, Vol.5(1), pp.105-130
- 이승욱(2008), “산재요양 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 이승욱·김선규(2014),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논의와 과제”, 한국지체 중북 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북.건강장애연구 제 57권 제2호,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57, No.2, 2014. 4. pp. 71~91
- 이승욱·박혜전(2007),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69-99
- 이승욱·신태식(2010), “사업주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결정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학술대회, 2010.6, 61-80(20 pages)
- 이웅·엄명용(2016),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 탐색 - 원직장복귀자와 타직장재취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6, Vol.68(4), pp.97-118
- 이윤희(2003), “산재환자의 가족지지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김승운·안성희(2016), “장애관련지식,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이 초등 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3(4), 725-738
- 이의빈·신성만·이다슬·조의혁·주현주(2018),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7 No.4
- 이재선(20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결정요인”,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욱(2012),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2015), “직업복귀 산재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호(2002), “근로복귀 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하(2008), “신체장애자들의 스포츠 참여정도, 장애수용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수(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 ~ 114
- 이지아(2012), “뇌졸중 환자의 장애수용 및 사회적지지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식·김명식(2012),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1): 29-54

- 이채식·김명식(2015),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5(2), 5-27
- 이하영(2017), “인적자원관리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과군 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병규(2018),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실증효과 분석 - 근로소득과 삶의 질 척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호(2006),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임종호(2010), “산재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2010. 11, 213~234(22page)
- 전보영·권순만·조병희·이태진(2010), “산재장애인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장애발생 후 직업복귀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199-222
- 정민선(2012),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2(4), 169-185
- 정승원(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pp.167-197
- 정월미·박정일·구정완·노영만(2003),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 예측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15(2), 119-131
- 정재은(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12, Vol.24, pp.81-124
- 정희옥(2016), “계층과 탈북자에 대한태도: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이 격차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 167-198
- 조동기(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조민수(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17-746

조성재(2009), “산재장애인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 요인”, 사업주의
산재장애인 채용 영향요인 워크샵자료집, pp.1-13, 근로복
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조성재·김욱·문성현·이준석·이준석·송창근·박유진(2014),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고
용노동부

천재영·최영(201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참여자의
일자리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3): 245-274

최은경(2012), “여성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심리
적 안녕감과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충현·이승욱(2015), “산재근로자 내일찾기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 근
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한충현(2017), “산재보험 복지사업 개선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
지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이슈리포트, 34, 1-14

황성혜·임원균(2012),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 재활복지, 16(3), pp. 245~268

Albrecht, G. L., & Devlieger, P. J. (1999), “The disability paradox:
high quality of life against all odds”, *Social Science
& Medicine*, 48: 977-98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4), 344-358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Inc.

- Bandura, A. (1998), "Self-efficacy In V. S. Ramachau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4, pp. 71 ~ 81), New York: Academic Press. (Reprinted in H. Friedman [Ed.], *Encyclopedia of mental health*, San Diego: Academic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pp. 646 ~ 653
- Black, O., Keegel, T., Sim, M.R. et al. J.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Return-to-Work Outcomes for Workers with Psychological or Upper-Body Musculoskeletal Inju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07 March pp 1 ~ 12. 2017
- Blascovich J,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Edited by Robinson JP, Shaver PR, Wrightsham LS. New York, Academic Press
- Butler, R. J., Johnson, W. G. and M. L. Baldwin(1995), "Managing Work Disability: Why First Return to Work Is Not A Measure of Succe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8(3), 452-469.

- Diener, E., Inglehart, R., & Tay, L. (2013), "Theory and validity of life satisfactionsca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3), pp. 497 ~ 527.
- Fogarty, C. A, & R. J. Beck(1995), "Work Adjustment for Individuals with PTSD,"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8(3), pp. 76~80
- Groomes, D. A., and D. C. Linkowski(2007),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Revised Acceptance Disability Scale", *Journal of Rehabilitation*, 73(3): 3-9
- Infante-Rivard, C. and M. Lortie(1996), "Prognostic factors for return to work after a first compensated episode of back pai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3, 488-494.
- Klassen, R. M., & Usher, E. L. (2010), "Self-efficacy in educational settings: Recent research and emerging directions. In T. C. Urdan & S. A. Karabenick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Vol. 16A. The decade ahea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p.1-33), Bingley, United Kingdom: Emerald Publishing Group
- Kriesberg, L. (196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rank and behavior", *Social Problems*, 10(4), 334-353
- Livneh, H.(2001), "Psychosocial Adaptation to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3); 151-160.
- Maki, D. & Tarvydas, V. (2012). "Professional practice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Springer.New York
- Marinelli, R. P., & Dell Orto, A. E.(1984),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physical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aslow, Abraham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Nesterko, Y., Braehler, E., Grande, G. & Glaesmer, H., (2013).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immigrants and native-born Germans: the role of immigration-related fac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22(5), pp. 1005 ~ 1013
- Park, H., & Smiths, J. (2005),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South Korea: Trends 1930-199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2, 337-356
-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07-231
- Starr, P., & Heiserman, K. (1977), "Acceptance of disability by teenagers with oral-facial cleft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0(3), 198-201
- Turner, B. S. (1984), "The body and society.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 Vestling, M., Tufvesson, B. & Twarsson, S. (2003), "Indicators for return to work after stroke and the importance of work for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5(3), pp. 127 ~ 131.
- William C. Torrey, Kim T. Mueser, Gregory H. McHugo, Robert E. Drake (2000), "Self-Esteem as an Outcome Measure in Studi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February 2000 Vol. 51 No. 2, pp. 229 ~ 233

- Wood, R.,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New York: Harper and Row
- Zingraff, Rhonda, & Michael D. Schluman (1984), "Social Bases of Class Consciousness", *Social Forces*, 63(1): 98-116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come of Workers Returned to Work

- Focused on the types of return to work, early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service factors

Lee Sangm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a purpose to search th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finished medical treatment.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return to work, early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whether to receive rehabilitation services. The analysis model of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The hypothesis that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at the time of the disaster will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income change than other cases, and the hypothesis that providing rehabilitation services will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income change than not have a statistical basis to be adopted.

Meanwhile,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ll affect the amount of income change after returned to work was rejected due to lack of statistical support.

keywords: Industrial disaste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come, self-esteem, self-efficacy, return to work

Student Number : 2019-28308